

9-1. 세 왕국 전쟁과 공화정의 실험

1. 세 왕국 전쟁과 해석

세 왕국 전쟁 (1637-52) or 영국혁명(the British Revolution) 잉글랜드 스코틀랜드
아일랜드 내전

- 1637-41 스코틀랜드 혁명
- 1641-52 아일랜드 반란
- 1642-49 잉글랜드 혁명(the English Revolution)

→ 위 세 사건을 중심으로 세 왕국에서 국왕 파와 반 국왕 파가 벌인 내전

전통적 해석과 수정주의 해석

- 전통적 해석
 - a. 각 왕국의 사건들을 독자적 사건으로 인식
 - b. 1642 년 잉글랜드 혁명을 중시, 개별적으로 연구
 - c. 장기적인 원인이 있다고 여김
 - d. 잉글랜드 혁명은 시민혁명
- 수정주의적 해석
 - a. 세 사건은 서로 관련, 5 년 내에 일어난 사건이다.
 - b. 각 사건은 다른 사건과 연계 연구 필요, 하나의 사건으로 연구 필요
 - c. 단기적으로 우발적인 동기
 - d. 시민혁명이 아니라 종교 동란

2. 세 왕국전쟁의 장기적 원인과 단기적 원인

1) 장기적 원인

이질적 종교 개혁

- 잉글랜드
 - 조직-주교제도(성공회)
 - 예배 – 기도 및 의식 중심
 - 왕권 – 국왕은 수장

- 반대자 : (칼뱅파 지지하는) 청교도 운동
- 스코틀랜드
 - 조직 - 장로회 제도(장로교)
 - 예배 - 설교중심
 - 왕권 - 왕의 간섭 배제
 - 반대자 : 소수의 주교제 선호하는 자들

왕실통합(1603)

-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복합왕국의 성립
 - 각국의 종교적 소수자들이 다른 왕국의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우가 생김
- 통치 어려움
 - 양국 통합운동 발생
- 정치적 종교적으로 서로 얽히게 됨
 - 한 왕국의 사건은 필연적으로 다른 두 왕국에 영향을 미침

2) 단기적 원인

찰스 1 세의 친 가톨릭 정책 가톨릭은 아니지만 친 가톨릭

- Canterbury 대주교 윌리엄 로드 기용
- 잉글랜드 - 제단 만들기, 아르미니우스(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) 교리 강조, 청교도 박해 (많은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게됨)
- 스코틀랜드 - 주교제도 강화, 공동기도서 강요, 장로교 박해
- 아일랜드(대부분 이미 가톨릭이라 강요는 X) - 수장법(교황이 아일랜드 수장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이 수장이다~) 강요

3. 세 왕국전쟁의 전개

1) 스코틀랜드 혁명(1637 - 1641)

- St Giles 기도서 폭동(1637.7) - 기도서 도입 반대 (찰스가 스코틀랜드의 대부분 귀족, 고위 성직자들을 불러 놓고 공동 기도소를 강요했음, 이 기도소 대로 예배가 시작되자 장로교들이 폭동 일으킴 - 장로교들이 뭉치는 계기가 됨)

- 국민언약(The National Covenant, 1638) – 장로교 수호 서약 (장로교를 수호하겠다는 내용)
- 글라스고 총회(1638.12) (장로교 목사들의 모임) – (국왕이 만들어준) 주교제도 폐지
- 제 1 차 주교전쟁(The 1st Bishops Wars, 1639) – 국왕의 스코틀랜드 침공 - 패배
- 잉글랜드 단기의회 소집(1640.4) – 군비 지원요청, but 의회는 거절(잉글랜드 의회도 국왕의 종교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함 → 의회 해산시킴)
- 제 2 차 주교전쟁(1640.10) – 스코틀랜드인들의 승리 – (국왕은 믿을 수 없다, 잉글랜드에 의회를 소집해라 요청) 잉글랜드 의회소집 요구 → 오래 유지됨
- 장기의회(The Long Parliament)의 소집(1640) –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자유 획득
- 런던조약(1641)

- 2) The Irish Rebellion 아일랜드 반란(1641) – 가톨릭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킴
- 찰스 1 세의 교황이 수장이 아니라 자신이 수장이라 주장하는 성공회 정책에 반발
 - 북 아일랜드 식민에 대한 반발
 - 스코틀랜드 혁명의 결과에 고무

- 1641 년 11 월 얼스터 반란
- 1642 년 '아일랜드 연맹'조직 아일랜드 전역으로
- 장기의회는 스코틀랜드에 진압 요청
- 스코틀랜드 파병
- 장기전으로 발전

3) 잉글랜드 혁명(1642)

- 장기의회가 개혁요구(1640-1642)
 - 조교제도 폐지 (스코틀랜드인, 청교도들이 주도) , 국왕 불만
 - 대간언 – 근소한 표차로 통과 (국왕의 잘못을 나열한 문서, 고쳐라!) , 국왕 더불만

- 국왕 - 1642.1 의회지도자 5 명 체포 시도 (런던에 요청 했는데 런던도 요청 거절하게 됨)
- 내전의 시작(1642. 8) - 양편 군대 모집

4) 스코틀랜드의 내전 참여와 반국왕파 승리

내전 초기에는 의회 보다 국왕 우세, 의회가 국왕에 저항하다가 전쟁에서 지면 큰 낭패
→ 의회에는 청교도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이 종교적으로 성격이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

[엄숙동맹과 언역](1643)

-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계약파간의 동맹 스코틀랜드군의 협조를 받기 위해 의회는 장로교 수용을 약속
- 스코틀랜드 내전 참여

Westminster 총회(1643-47)

- 장로교 문서 제정 (잉글랜드의 목사들을 초청해서 잉글랜드 교회를 위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라, 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)

[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]

[예배모범]

- 의회군과 스코틀랜드군의 활약
 - Marston Moor 전투(1644.6) - 합동작전으로 왕당파에 승리
 - Naseby 전투(1645.6) - Cromwell 의 (잉글랜드 의회군을 신형군이라 만듦)신형군 활약
 - Charles 1 세의 투항(1646.6) - Scotland 군에 투항, 의회군에 인도

→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교회가 장로교 교회를 받아들이게 만들기를 원했음, 하지만 잉글랜드는 장로파와 독립파로 나뉘게 됨
장로파 - 개별 교회의 권한 X, 총회가 더 큰 힘, 장로라 하자
독립파 - 개별 교회의 독립성 강조

5) 의회파 분열과 2 차 내전

장로파와 독립파의 대립

- 1645 년 이후 심각해짐
- 장기 의회 분열
- 독립파 권력 장악

프라이드의 숙청(1648. 12)

- 의회내 장로파의원들 추방
- [잔부의회]로 전락 →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이 불쾌하게 생각함, 왜냐면 약속했기 때문

국왕과 언약파의 약정(Engagement) 성립(1647) (내가 석방되면 잉글랜드에 장로교를 도입하겠다.)

- Engagement 성립 → 약정파라 불림

제 2 차 내전(1648-52) – 의회파 vs 스코틀랜드군

-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 정복

아일랜드 반란 진압(1649-1652)

4. 결과

공화정의 수립

- Charles 1 세(국왕)의 처형(1649, 1) , 국가 반역죄
- 상원폐지
- 잔부의회 해산

[통치장전]마련 (1653)

- 잉글랜드 최초 성문헌법 – 호국경제도
- 호국경(Lord Protector) 통치(1653-59)
- 올리버 크롬웰은 종신 호국경
- 금욕적인 청교도 정치

<정리>

- 세 왕국전쟁은 세왕국에서 일어난 국왕파와 반국왕파 사이의 내전이다.

- 세 왕국전쟁의 원인은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.
- 세 왕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종교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.
- 세 왕국전쟁에서 승리한 크롬웰은 공화정을 도입하였다.